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Collection and
Publication of *Jejong Gyojang* by Ueicheon

김 성 수 (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론 | 2.3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
| 2.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 3. 제종교장의 간행 영향 |
| 2.1 代世子集敎藏發願疏 | 4. 결론 |
| 2.2 新編諸宗教藏總錄序 | <참고문헌> |

< 초 목 >

이 논문은, 대각국사 의천이 諸宗教藏(高麗 續藏)을 수집한 배경을 탐구하고, ‘제종교장의 간행 및 의천의 敎學思想은 조선시대 佛經의 간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의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에서는, ① 의천은 불교 교학에 관한 국제주의 및 보편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산재된 장소(章疏)들을 총괄하여 수집함으로써 제종교장을 一藏으로 結集하는 것이 그 1차적인 목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② 의천이 제종교장을 조인(彫印: 판각 및 인쇄)한 궁극적인 목적은, 대장경의 완벽한 유통을 위하여, 正藏인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 高麗初雕大藏經)에 續藏인 제종교장을 一藏으로 補續함으로써 ‘正藏과 續藏이 겹비된 가장 완전한 대장경을 전래시키는 것이었음’을 규명하였다.

둘째, 제3장 ‘제종교장의 간행 영향’에서는,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을 주목하고, 이 사상이 조선시대 불경의 간행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형태서지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한국불교 소의경전>인 「화엄경」을 비롯하여 「법화경」·「능엄경」·「대승기신론」·「원각경」·「금강경」 등에서 경전 본문의 각 단락(句節)에 특정 章疏의 해당 부분이 각각 혼입(混入)되는 간행 형식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러한 조선시대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은, 결국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이 조선불교 소의경전의 간행에 사상적인 영향을 지대(至大)하게 끼친 결과로써 나타난 현상임을 파악하였다.

要語: 대각국사, 의천, 제종교장(諸宗教藏), 수집 배경, 한국불교 소의경전(所依經典)

* 이 논문은 2013-2014년도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의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조성된 연구임.

본 연구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주최한 “제2차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일시: 2014. 04. 25. 장소: 부석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체계화한 것임.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4년 5월 21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Daegak-Guksa Ueicheon's collecting *Jejong Gyojang* and what influences his idea of teaching and learning had on the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in the Joseon Perio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Chapter 2 'Background of Collecting *Jejong Gyojang*', it is ascertained that ① the primary objective of Ueicheon was to integrate *Jejong Gyojang* into one integral set by gathering comprehensively various Buddhist scriptures and writings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ies in East Asia, based on his idea of internationalism and universalism for Buddhist teaching and learning, and then ② the ultimate objective of his engraving and printing *Jejong Gyojang* was to compile and distribute the most complete collection of Tripitaka by adding *Jejong Gyojang*, the supplementary scriptures, to *Jinbyeong Daejanggyeong*(鎮兵大藏經: First Tripitaka Koreana), the original genuine Tripitaka, and then completing them as one integral set.

Second, in Chapter 3, 'Influence of Publishing *Jejong Gyojang*', with a focus on Ueicheon's idea of teaching and learning about Tripitaka, what influences his ideology had on the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in the Joseon Period was discussed from a bibliographical viewpoin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 various Korean Buddhist sectoral scriptures such as *Hwaeom-gyeong*(『華嚴經』), *Beopwha-gyeong*(『法華經』), *Neungeom-gyeong*(『楞嚴經』), *Daeseung Gisin-ron*(『大乘起信論』), *Wongak-gyeong*(『圓覺經』) and *Geumgang-gyeong*(『金剛經』), the style of publication was changed to add certain appropriate parts of commentaries to each paragraph of scriptural texts. Such change was ascertained to be what Ueicheon's idea of teaching and learning about Tripitaka had a tremendous ideological impact on the publication of Korean Buddhist sectoral scriptures in the Joseon Period.

Key words: Daegak-Guksa(大覺國師), Ueicheon(義天), *Jejong Gyojang*(諸宗教藏), Background of Collection, Korean Buddhist Sectoral Scriptures and Writings(韓國佛教 所依經典)

1. 서론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은 신라의 원효대사에 버금가는 敎學佛敎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천은 고려의 전성기에 왕자로 태어나 11세에 出家하여, 1090년 당시까지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章疏(疏鈔)들을 총망라하여 수집하고, 『新編諸宗教藏總錄』을 編撰한 후, 이 목록에 입각하여 『諸宗教藏(續藏經)』¹⁾을 結集·간행함으로써 世界佛敎史上 初有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不世出의 高僧이면서 불교학자이고, ‘大覺’이라는 그의 시호(諡號)가 말해 주듯이 ‘석가모니의 後身’이라 불릴 정도로 교학불교에 있어서 의천의 업적은 진실로 위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의천이 제종교장을 수집한 배경과 목적 등이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먼저 고찰하여 보고, 제종교장의 간행이 조선시대 佛典의 간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의 문제 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의천에 관한 가장 신뢰성 있는 1차 문헌인 『大覺國師文集』所收의 “代世子集敎藏發願疏”와 “新編諸宗教藏總錄序”·“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및 『大覺國師外集』의 “靈通寺大覺國師碑文”·“南崇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序” 등의 여러 史料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의천의 章疏 수집의 배경과 그 간행의 궁극적인 목적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대각국사문집』 등에서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敎學思想’을 導出하고, 이 사상이 조선시대에 간행된 『화엄경』 등 주요 불경의 간행방식을 어떻게 변화시

1) 특정 佛經에서 그 내용을 篇·章(단락) 등으로 나누어 그 敎義를 論한 것을 ‘章(장)’이라고 하고, 經論 文句의 뜻을 따라 해석한 것을 ‘疏(소)’라고 한다. ‘鈔(초)’는 불경의 광범한 글의 뜻을 요약하여 추려 엮은 책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疏’는 三藏에 대한 註釋을 가리키고, 鈔는 다시 疏에 대한 주석을 말한다.

불교의 註釋書를 ‘章疏’라고 부르는 까닭은 불교문헌의 주석이 ‘단락을 나누어 해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章疏나 疏鈔들은 주로 종파(宗派)를 위주로 하여 저술·발전되었기 때문에 ‘제종(諸宗)’ 또는 ‘백가(百家)’라는 표현을 앞세우는 것이다(오윤희, 『일꾼 의천』 (서울: 불광출판사, 2012), 274-275. 참고.)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켰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써 제종교장의 간행 영향에 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본 장에서는, 의천이 章疏를 수집하게 된 사상적인 배경 및 그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천이 직접 작성한 “세자를 대신하여 敎藏의 수집을 발원하는 글(代世子集敎藏發願疏)”과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서문(新編諸宗教藏總錄序)” 및 “선종(宣王: 宣宗)을 대신하여 제종교장을 간행(彫印)하면서 지은 글(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등 『대각국사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原文獻)들을 그 전거(典據)로 삼아 아래 각 절과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1 代世子集敎藏發願疏

의천은 “대세자집교장발원소”(1073)에서

… 삼가 생각건대, 세존(婆迦婆: 바가바)께서는 … 음뢰(音雷)를 크게 떨치고 법우(法雨)를 멀리 적시어 보리(菩提)의 길을 가르키고 해탈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못 중생을 계도하고 지극한 교화를 펼치셨으니, 이를 통해서 식심견성(識心見性)하고 반본환원(返本還源)²⁾한 자들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 학수(鶴樹: 사라쌍수)에서 빛을 숨기심에, 엽암(葉巖: 칠엽암굴)에서 [부처님의 설법들을] 결집(結集)하였고, 마명(馬鳴)과 용수(龍樹: 나가르주나)의 무리가 논(論)을 지어 경(經)을 선양(宣揚)하였으며, 무착(無着)과 천친(天親: 세친)의 무리가 그 일을 계승하여 더욱 꽃피웠습니다. …

…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때에 와서야 비로소 백마(白馬)를 맞이하였습니다.³⁾ 등란(騰蘭)⁴⁾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 그리하여 진진(眞詮)을 거듭 번역하

2) ‘十牛’의 제9단계 ‘본래로 돌아온다는 뜻’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깨침을 얻어 부처가 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3) 불교의 典籍이 처음으로 중국에 전래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중국 전래의 시기는, A.D.67년(後漢 永平 10)에 친황이 印度에 파견한 일행이 白馬에 불교 경전을 싣고 碣陽(洛陽)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 후에 이를 기념하여 현재의 碣陽시의 동북쪽

여 명교(名敎)를 크게 선양하였으니 … 사의(四依) 보살이 이따금씩 나와 소(疏)를 지어 발양하고 삼장법사가 또 걸출하게 나와 초(鈔)를 펼쳐서 보익(補益)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문(遺文)이 번창하여 퍼지면서 온 세상이 받들어 행하게 되었으니, 실로 한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마쳤다고 말할 만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저(某: 의천)는 일찍이 … 태어나 … 어찌하여 수륙재를 원만하게 베풀기도 전에 조그마한 몸에 그만 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비록 오음(五陰)이 싫다고 하더라도 어찌 한 세상 포기할 수야 있겠습니까. … 신체의 강화(康和)를 얻는다면 … 수명을 더욱 연장 … 또한 계속 서원을 세워서 다시 닦아 나갈 것입니다.

돌아본건대, … 비록 경론(經論: 대장경)은 갖추어졌으나 소초(疏鈔)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금에 걸쳐 요나라와 송나라에 있는 백가(百家)의 과교(科敎)를 일장(一藏)으로 모아 유통시킴으로써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여 사된 그물의 매듭을 풀어 버리고, 상법(像法)을 다시 일으켜 국가를 이롭게 함은 물론, 향사(恒沙)와 같은 세계의 군생(群生) 모두에게 금강의 선한 씨앗을 뿌리고, 다함께 보현보살의 도를 배워 노사나불의 이상향에서 노닐게 하고자 합니다.⁵⁾

라 하였다. 위 인용문은 일종의 선언문과 같아서 그 제목부터 주목되며, 起承轉結로 전개되는 發願疏의 내용에서 더욱 주목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의천은 당시까지 고려에 전존하거나 신라 이래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소초(疏鈔)는 물론이려니와 중국(宋)과 요(遼)나라 등에 산재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모든 章疏들을 수집하여 一藏으로 결집하여 유통시키기 위하여, ‘세자를 대신하여 敎藏을 수집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발원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원은 의천 개인의 사사로운 誓願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책임져야 하는 세자, 즉 왕실을 대신하여 수행하려는 ‘국가적인 사업의 발원’으로써, 이른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서원임을 파악할 수 있게

12km 떨어져 있는 漢魏의 洛陽城 내에 白馬寺를 창건하였다.

4) 騰闌: 중국에 불교를 처음 전하고 譯經을 시작한 섭마등(攝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을 並稱하고 있음.

5) 義天, “代世子集敎藏發願疏,”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285-286. 이상현 선생의 『대각국사집』 번역 내용은 그 原文을 대조하여 검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번역이 모범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각국사집』에 번역된 내용을 인용문으로 채택할 때, 그 원문의 부기(附記)를 생략함.

하여준다.

둘째, 위 의천의 발원문은 ‘起・承・轉・結’의 형식으로 매우 명료하고 강력한 논지(論旨)를 피력하고 있다. 게다가 이 발원문이 의천의 나이 불과 ‘19세(1073) 때에 작성’⁶⁾한 것임을 확인할 때 더욱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위 발원문의 전체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논술하고 있다.

‘起’ 문단에서 의천은,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의 깨침 및 중생교화와 열반’에 서부터 ‘佛經의 결집 및 그 후 인도에서의 마명・용수 등에 의한 論의 성립과 선양’을 논급함으로써, 석가모니에 의한 불교의 發祥에서부터 대승불교의 성립과 선양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인도불교에 대한 精通한 지식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당시 의천은 이미 通時的으로 불교 전반의 역사를 간파하고 있으며, 아울러 심오하게 체계화된 지식정보를 완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承’ 문단에서 의천은, 불교의 중국 전래와 각 경론의 중국어 번역(漢譯)을 비롯하여 한역된 경론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서인 ‘疏鈔들의 저술 및 그 중요성’을 條理있게 논술하고 있다.

‘轉’ 문단에서 의천은, 치유 불가능한 병마(病魔)에 자신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신체의 강화 및 수명의 연장을 얻어서라도 기필코 서원을 이루겠다고 굳게 표명하고 있다.⁷⁾

‘結’ 문단에서 의천은, 당시 고려에 經論 즉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 고려 초조대장경)⁸⁾은 이미 갖추어졌으나, 부족하기만 한 章疏에 대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6) 『大覺國師文集』 제14권에 수록된 “代世子集教藏發願疏”는 제목 바로 뒤에 ‘年十九作’이라 明記되어 있다.

7) 특히 이 부분은, 자신의 생명 연장을 담보로 하여서라도 그 서원을 이루겠다는 의천의 결의(決意)는 사뭇 숙연(肅然)하기까지 하다.

8) 『고려사』 제129권, 列傳 제42, 최충헌條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고려 초조대장경’이라고 지칭하는 고려 최초의 대장경에 대하여, 고려시대 당시 高宗은 “전쟁(兵: ‘전쟁병’)을 진압(鎭)한 대장경” 즉 “鎭兵大藏經(진병대장경)”이라고 직접 명명(命名)함으로써, 고려 당시에 고려 초조대장경에 대하여 ‘진병대장경’이라고 지칭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진병대장경’이라는 명칭에서 현종 당시의 대장경 조조의 목적은 바로 ‘거란(契丹)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조조한 대장경’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입증(立證)하

지역을 통틀어 수집하여 ‘百家の 科教(諸宗教藏)를 一藏으로 결집하여 유통시킴으로써 佛法을 외호(外護)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논술하고 있다.

셋째, 의천은 고려에서 鎮兵大藏經의 彫造가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서 중국(宋)과 요(遼)나라의 章疏들을 수집하겠다는 서원을 세움(1073)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장총록』이 편찬되는 시점(1090)에서는 우리나라(新羅朝·高麗朝)를 비롯하여 중국(唐朝·宋朝)과 요(遼)⁹⁾·고창국(高昌國)¹⁰⁾·일본¹¹⁾까지 아우르는 동아시아 전체의 불교연구서(章疏)들을 총괄적으로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百家の 科教를 一藏으로 결집하여 유통시키겠다!’는 의천의 서원이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²⁾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8-80). 따라서 시대적으로 2차에 걸친 고려대장경 중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의 구별 및 식별을 위하여, 초조대장경은 ‘진병대장경(鎮兵大藏經)’이라고 명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9) 『大覺國師外集』 권제8에 요(遼)나라의 어사중승 아율사제(耶律思齊)의 서신 3통을 확인할 수 있다. 제2통의 내용에 의하면 “삼가 승통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경교(經敎)를 잘 받았습니다…”라 하였고, 제3통의 내용에 의하면 “전에 보여주신 목록과 관련하여 …”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의천은 아율사제에게 고려에서 유통되는 章疏(經敎)들과 그 목록을 요나라에 이미 보내주었고, 아울러 요나라에서 유통되는 소초들에 대한 수집 열망을 여러 차례 표명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10) 『大覺國師外集』 권제8에 高昌國 沙門 시라부저(尸羅疇底)의 서신 2수, 고창국 사문 발다라선(鉢多羅仙)의 서신 1수가 수록되어 있음으로 보아, 의천은 고창국에서 저술된 疏鈔의 수집에도 熱意를 가지고, 고창국의 여러 법사들과 서신으로 빈번하게 정보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1) 『大覺國師文集』 권제14에 “日本國의 法師들에게 敎藏의 수집을 요청하면서 ~”라는 제목이 기입되어 있는 의천의 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천은 日本의 여러 法師들로부터 日本 所在 章疏들을 수집하고자 다각도로 조치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 12) 이는 21세기 현재의 관점에서 보아도,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宋·遼)·일본·고창국 등 최소한 5개국 이상의 동아시아 국가 전체에서 생산된 모든 章疏들을 總括의로 一括하여 수집하려면 엄청난 경비(예산)와 시간이 所要되고, 각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다수의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을 감히 장담할 수 없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천은 11세기 후기 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동아시아 전체에 散在된 모든 장소들을 수집하겠다!’는 실로 상상하기도 어려우면서도 놀랍고 믿기지 않는 엄청난 기획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송나라와 요나라 그리고 고창국과 일본의 여러 법사들과 정보를 교류하였음에, 현재의 관점에서조차 ‘실로 경이(驚異)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음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의천의 제종교장의 수집과 관련한 서원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살펴 보기 위하여, 의천의 탄생에서부터 20대 중반까지의 傳記를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천은 1055년(文宗9: 乙未) 9월 28일에 문종의 넷째 왕자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超悟하였으며, 책을 읽고 글을 짓는 것도 精敏하여 걸출하게 頭角을 나타내었다.’¹³⁾ 의천은 11세 때인 1065년(文宗19: 乙巳) 5월 14일에 자청하여 영통사 景德王師 난원(爛圓)¹⁴⁾에게 출가하였다.¹⁵⁾ 의천이 난원으로부터 ‘賢首의 敎觀, 즉 華嚴學(華嚴宗)’을 물려받는 당시는 ‘비록 11세였으나, 학문을 멈추지 않아 이미 成人의 경지에 이르렀다. 언젠가 꿈에 어떤 사람이 정관법사¹⁶⁾의 글을 전해 주었는데, 이로부터 혜해(慧解)가 날로 발전하였다. 그 후 더욱 부지런히 노력하여 밤낮으로 매진하면서 박람강기(博覽強記)에 힘썼다. 난원이 입적(1066)한 이후 의천은 문도들과 더불어 講學을 그치지 않았다. 또 여러 종파(諸宗)의 학자들을 널리 모아 서로 더불어 강론하였다. 이 당시 의천은 일정한 스승이 없이 도(道)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배우곤 하였다. 현수의 교관으로부터 점돈(頓漸)과 대소승의 經律論 및 그 章疏에 이르기까지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틈나는 대로 불교 이외의 학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견문을 넓혔다. 그리하여 공자(仲尼)와 노자(老聃)의 글을 비롯하여 子史集錄과 제자백가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그 精華를 음미하고 그 근저(根柢)를 탐색하였다. 그래서 그 의논이 종횡으로 치달리며 끝없이 펼쳐졌으며, 체득한 경지가 워낙 탁월하여 그 어떤 老師나 宿德이라 하더라도 모두 의천을 따라갈 수 없다고 자인하였다. 이처럼 의천의 성명이 널리 전해지면서 당시에 이미 ‘法門

13) 金富軾, “[영통사 대각국사 비문],” 『대각국사집』, 689.

14) 현종의 丈人인 김은부의 아들로, 문종에게는 외숙이 된다.

15) 문종은 셋째 왕자인 희(이후에 肅宗으로 등극함)를 출가시키려 하였으나, 희 왕자의 정치적인 뜻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의천은 그 형을 대신하여 自請하여 出家하게 된다.

16) 淸涼澄觀(738-839): 중국 화엄종의 第4祖. ‘화엄보살’ 또는 ‘華嚴疏主’라고도 불림. 정관은 禪과 敎를 두루 섭렵하였고, 그의 학설은 天台·華嚴 敎學과 禪의 융합을 주장하여, ‘선·교 일치’ 사상에 기초를 둔 점이 특징임. 저서: 『華嚴經疏』 20권, 『華嚴經隨疏演義鈔』 40권, 『華嚴經玄談』 9권 등이 있음.

의 宗匠'이라고 일컬어졌다'¹⁷⁾라고 銘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천의 나이 13세 때인 1067년(文宗21: 丁未) 7월 乙酉日에 문종은 의천에게 '祐世'라 賜號와 함께 승려 직급의 最高僧階¹⁸⁾인 '僧統'을 수여하게 된다.

위와 같이 의천은 출가한지 불과 2년 만에 '승통'이라는 最高位의 승계에 단박에 오른 것은 실로 파격적인 職階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의천이 왕자의 신분으로 출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일면이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문단에서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천의 천부적인 英敏함과 출가를 전후하여 어릴 때부터 학문에 대한 근면함과 철저함이 더하여짐으로써, 출가 후 2년 만에 고려 불교계의 敎宗(화엄종) 최고의 승계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천은 "16세 무렵부터 서방 성인의 가르침에 종사하였다[불경의 강의를 시작하였다]"¹⁹⁾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세(1077)부터 강의를 시작하여 『정원신역화엄경(80권본)』과 [澄觀]疏 등 50권을 그해에 다 마쳤으며, 그 뒤로 강의를 한 번도 폐한 적이 없었다."²⁰⁾라 회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천의 나이 19세 때에 위 인용문을 작성할 당시에, 의천은 이미 인도불교의 生成에서부터 불교의 중국 전래 및 중국에서 불전의 번역과 그 章疏의 생산과 유통되는 상황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의천은 당시까지 동아시아에서 저술된 불교 경론에 대한 연구논문들인 章疏들에

17) ① 金富軾, "[영통사 대각국사 비문]," 『대각국사집』, 689-690.

② 林存, "南崇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序," 『대각국사집』, 717.

18) 고려 光宗(949-975) 때의 僧階는 '大德,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의 순으로 그 직계가 상향되었다. 成宗(981-997) 때에 敎宗에서는 '首座, 僧統', 禪宗에서는 '禪師, 大禪師'의 직계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의천 당시 '僧統·大禪師'는 최고의 승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승계라고 보기 어려운 최고의 지위로 '王師, 國師'가 있다.

19) 義天, "與內侍文冠書," 『大覺國師文集』 권제13, 『대각국사집』, 267. "나의 사람됨으로 말하면, ... 16-7세 무렵부터 서방 성인의 가르침에 종사하여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釋氏(석가모니)의 교법 중에 중국에 유통된 것이 백에 한둘도 아니 되지만, 지금 전하는 三藏의 正文이 6-7천권에 이르고, 그밖에 고금의 현철이 註疏를 낸 것이 1천 년 동안 어느 시대이고 없지 않아서 이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20) 義天, "庚辰六月四日 國清寺講徹天台妙玄之後 言志示徒," 『大覺國師文集』 권제20, 『대각국사집』, 460.

대한 총괄적인 수집, 즉 동아시아 전체의 소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一藏으로 유통시키려는 원대한 서원을 세웠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위 인용문의 결(結)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천은 고려에서 대장경이 완성되어 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저술된 章疏들을 수집하여 一藏으로 결집함으로써 대장경(鎮兵大藏經)을 완벽하게 보완하려는 국가적인 차원의 서원을 세웠음을 파악할 수 있다.²¹⁾

2.2 新編諸宗教藏總錄序

앞의 절에서 논급한 의천의 ‘대세자집교장발원소’에서는 당시 부족한 소조들을 수집하여 학습하고 유통시킴으로써 대장경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의천의 章疏 수집에 대한 사상적이고 궁극적인 염원(念願)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서문(新編諸宗教藏總錄序)”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²²⁾

… 나는 일찍이 ‘경론(經論: 대장경)을 갖추었다²³⁾ 하더라도 장소(章疏)가 없으면 [대장경] 유통시킬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승공(昇公: 智昇)

21) 그리하여 의천은 고려에서 유통되는 신라시대의 모든 장소를 수집하는 한편, 중국의 정원법사를 비롯한 여러 고승을 통하여 당나라 시대의 疏鈔들을 비롯하여 송나라에 현존하는 章疏들을 수집하게 된다. 한편으로 의천은 송나라로 직접 건너가서 장소들을 수집하고 佛法을 구하고자 하는 表文을 올리게 된다(義天, “請入大宋求法表,” 『대각국사문집』 권제 5, 『대각국사집』, 115-118.). 그리하여 의천은 마침내 1085년(宣宗2) 4월 초파일에 송나라로 출발하였다.

22) 이 서문은 의천의 나이 36세 때인 1090년에 작성한 것이다.

23) 1011년(顯宗 2)에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대장경의 조조(彫造)를 하늘에 맹서하자 거란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갔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고종(高宗) 당시에도 고려 조조대장경을 “진경을 진압한 대장경, 즉 진병대장경(鎮兵大藏經)”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하여 진병대장경은 현종 당시에 5,000축(軸)의 비장(秘藏)을 조조하였고, 문종 당시에 다시 10만 송의 계경을 조조하였다. 그리하여 1087년(宣宗 4)년 2월에는 開國寺에서, 3월에는 興王寺에서, 4월에는 歸法寺에서 각각 대장경의 완성을 경축한 기록이 있다(『高麗史』 권제10, 世家 권제10, 宣宗 丁卯 4年 2月條, 3月條, 4月條. 참조). 따라서 진병대장경의 조조는 1087년에 그 모든 공정과 印經 등이 完了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 호법(護法)의 뜻을 본받아 교적(敎迹: 章疏)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

이제 그동안 수집한 바, 제종(諸宗)에서 찬술한 신구(新舊)의 장소(章疏)들을 감히 사적으로 비장(秘藏)할 수 없기에 모두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뒤에 다시 얻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록할 생각이다. 앞으로 편차(編次)할 함질(函秩)이 삼장(三藏)의 정문(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해진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때는 후고려(後高麗) 13대 임금님이 즉위하신 지 8년째 되는 경오년(庚午: 1090) 8월 초과일에 해동전화엄대교사문(海東傳華嚴大敎沙門) 모(某: 의천)가 짓다.²⁴⁾

라 하였다. 위 인용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첫 문단에서 의천은 ‘고려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장경(經論)을 제대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몸소 20년간이나 章疏를 수집하였음’을 明示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천은 수집된 장소들을 一藏으로 결집하기 위하여, 章疏目錄으로서 세계에서 효시(嚆矢)를 이룬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編撰)하였고, 그 서문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위 인용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의천은 『교장총록』에 편찬된 모든 章疏들을 간행함으로써, 간행된 모든 장소(函帙)들이 三藏인 대장경(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래되기를 所望하고 있다.

둘째, 바로 위와 관점에 입각하면, 의천은 ‘대장경의 해당 경론에 관련된 章疏들이 각각 부가(附加)되어야 비로소 그 대장경의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⁵⁾ 그리하여 의천은, 제종교장의 각 疏鈔들이 대장경의 해당 經論과 함께 병존(並存)할 때, 즉 개개 경론들은 각 소초들의 설명과 해설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그 경론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위의 두 사항을 특히 주목하면, 의천은 자신이 20년 이상 수집한 장소들

24)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대각국사집』, 62-63.

25) 또한 바로 이 부분은, 의천이 『신편제종교장총록』에서 모든 제종교장을 분류할 때 각 경론의 書名을 상위 개념(subject heading)으로 두고, 그 해당 경론의 서명 아래에 해당되는 각각의 章疏들을 안배(按配)한, 이른바 ‘교장총록의 분류원칙’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을 결집하여 대장경 三藏(경·율·론)에 제종교장을 ‘제4장(第4藏)’으로 추가시킴으로써,²⁶⁾ 대장경(三藏)과 제종교장(第4藏)을 병존하여 전래시켜야만 비로소 대장경을 제대로 유통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곧 ‘전통적인 三藏에 주석(註釋)을 결집한 별도의 장(藏: 제종교장)을 부가시킴으로써, 고려의 대장경을 ‘사장(四藏)’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던 의천의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의도’²⁷⁾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의천은 正藏(三藏)인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에 정장을 보완하고 이어주는[補續] 續藏인 諸宗教藏을 병존시켜 유통되게 함으로써 불교의 護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²⁸⁾

넷째, 의천이 주도적으로 편찬·간행하려는 제종교장은, 대장경을 제외한 章

26) 즉 正藏인 대장경을 ‘경·율·론의 三藏’으로 표현하면 續藏인 諸宗教藏은 이른바 ‘第四藏’이라 볼 수 있다.

27) 서진수·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64.

28) 의천은, 위의 인용문에서 대장경을 “三藏의 正文”이라 표현하였고, 자신이 20년 이상 정리 수집한 章疏들에 대해서는 “諸宗에서 製撰한 新舊의 義章”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大藏經을 ‘正藏’이라 하면, 諸宗教藏은 正藏을 보완하고 이어주는(補續) 개념이기 때문에 ‘續藏’ 또는 ‘續藏經’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천이 수집한 모든 장소들을 “諸宗教藏”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는 고유명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천이 수집한 ‘제종교장’을 일반명사로 지칭할 때에는 ‘續藏’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符合)한다. ‘續藏’ 또는 ‘續(大)藏經’이라는 명칭은 일본인 학자들이 먼저 지칭하였다. 즉 1911년에 小野玄妙가 쓴 『高麗祐世僧統義天』 중 ‘大藏經板雕造의 事蹟’에서 “4천 권의 諸宗章疏를 續大藏經이라 칭할 수밖에 없다(서진수·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64. 재인용)”라 하였고, 1937년에 大屋徳城은 『高麗續藏雕造攷』라는 단행본(大屋徳城, 『高麗續藏雕造攷』 (京都: 便利堂, 昭和12(1937)))을 출간하였으며, 또한 池内宏도 1923년에 『東洋學報』에 발표한 논문에서 ‘義天의 續藏’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池内宏, “高麗朝の大藏經,” 『東洋學報』 第13卷 第3號(大正 12(1923)), 307-362). 이와 같이, 일본의 학계에서는 20세기초에 이미 의천의 諸宗教藏은 正藏을 補續하는 ‘續藏·續大藏經’이라고 그 개념을 정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천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唐朝·宋朝 등)과 요(遼)나라와 高昌國과 日本 등 동아시아 전체 국가에서 제종교장을 국제적으로 수집하고 결집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천의 國際主義 내지는 普遍主義적인 사상에 입각한다면, 일본인 학자들이 20세기초에 이미 정립한 ‘續藏·續大藏經’이라는 용어를 지금에 와서 한국에서만 굳이 배제(排除)하는 것은 옹졸하고 편협된 국수주의(國粹主義)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학설에 오류가 있다가거나 어용적인 측면이 있다면 기필코 수정 또는 규명(糾明: 歸正)되어야 하겠지만, 제종교장에 대하여 ‘正藏을 補續하는 개념으로서의 續藏’이라고 그 개념을 제대로 정립한 용어를 지금에 와서 굳이 배제시키고 외면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疏와 기타문헌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부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천의 최종 목표는 가장 모범적인 대장경을 완성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²⁹⁾ 왜냐하면, 실제로 의천은 “일본국 법사들에게 敎藏의 수집을 요청하면서 부치는 글(奇日本國諸法師求集敎藏疏)”에서

삼가 여러 선우연(善友緣)에게 아뢰입니다.

우리나라(本國)에서는 불교를 숭봉(崇奉)한 날이 오래되었습니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은 지승(智昇)이 편찬(編撰)한 것이고, 『정원속개원석교록(貞元續開元釋教錄)』은 원조(圓照)가 편찬한 것입니다. 이 두 책(兩本)에 수록된 경율론(經律論) 등과 송나라에서 새로 번역한 경론 등 도합 6천여 권을 이미 목판에 새겨 간행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성인이 … (결락) …

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편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천은 그가 염원하는 제종교장과 대장경과의 관계 등을 일본국 법사들에게 설명하면서,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章疏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작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⁰⁾

위와 같은 논지는 아래에 제시되는 의천의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입증할 수 있다.

29) 허홍식, “中世의 佛敎書와 大藏經,”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7), 155. 참고.

30) 다시 말하여, 위 인용문의 뒷부분은 결락(缺落)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국 법사들에게 교장을 수집하기 위하여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개원석교록』과 『정원속개원석교록』을 언급하고, 이 목록들에 의하여 『鎮兵大藏經』을 목판에 모두 새겨 6천여 권을 간행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인용문에서 결락된 편지의 내용을 추정한다면, ‘이러한 지승의 호법(護法)의 뜻을 본받아, 일본과 고려를 비롯한 중국(宋·遼) 등 동아시아의 모든 章疏들을 수집하여 一藏으로 만들어 ‘진병대장경’에 보속함으로써 불법을 무궁하게 전래시키겠으니, 일본에 현존하는 모든 장소들을 收습하여 고려로 보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내용이 전개되었을 개연성(蓋然性)이 농후(濃厚)하기 때문이다.

2.3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의천은 “선종(宣王: 宣宗)을 대신하여 제종교장을 간행(彫印)하며 지은 글(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서

… 대저 부처가 설한 것이 경(經)이요, 경에서 나온 것이 논(論)이니, 경은 논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논은 소(疏)를 기다려서 풀리고, 소(疏)는 의(義)를 모아 밝혀지며, 義는 스승(師)을 통해서 서술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어서 주역(紬繹)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지자(智者: 지의)가 천태산에서 종지(宗旨)를 수립하고,³¹⁾ 원공(遠公: 慧遠)이 정영사에서 가르침을 내릴 수 있었으며, 자은(慈恩: 窺基)과 안국(安國[寺]: 利涉)이 중설(衆說)을 삼시(三時)³²⁾로 종합하고,³³⁾ 현수(賢首)와 청량(淸涼)이 이단(異端)을 오교(五敎)로 회통시킬 수 있었습니다.³⁴⁾ 그리고 남산(南山)의 행사(行事: [南山 律宗])와 동탑(東塔)의 개종(開宗: [東塔 律宗]) 등이 나왔는가 하면,³⁵⁾ 후대에 제가(諸家)에 미쳐서는 거의 백씨(白氏)를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원성(元聖: 원효)으로부터 보잘것없는 이 몸 [義天]에 이르기까지 중선(衆善)을 돈독히 하여 국가를 보전하였고 … 현조(顯祖: 현종)께서는 5천 축(軸)의 비장(秘藏)을 새기셨고, 문고(文考: 문종)께서는 10만 송의 계경(契經)을 새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정문(正文: 대장경)은 원근에 퍼지게 되었으나, 장소(章疏)는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널리 외호(外護)하는데 뜻을 둔다면, 실로 … (결락) …³⁶⁾

라 하였다. 후미가 결락된 위 인용문에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1) 천태지의(天台智顗)가 천태종(天台宗)을 개창(開創)한 것을 의미한다.

32) 三時: ① 有·空·中 3時; 法相宗, ② 種·熟·脫 3時; 天台宗.

33) 자은규기(慈恩窺基)가 개창한 자은종(慈恩宗; 法相宗)을 의미한다.

34) 현수(賢首)가 개창한 화엄종(華嚴宗)을 의미한다. 청량정관(淸涼澄觀)은 화엄종의 제4조(祖)로서 의천이 존경하였던 인물이다.

35) ① 南山: 從南山의 道宣이 『四分律行事鈔』를 지은 것을 말한다. ② 東塔: 長安 崇福寺 東塔의 懷素가 『四分律開宗記』를 지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문장은 곧 ‘律宗의 開創’을 의미한다.

36)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권제15, 『대각국사집』, 300-301.

첫째, 의천은 위 인용문의 제목을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라고 특별하게 명명(命名)한 이유는, 제종교장 간행(彫印)의 의미는, 의천 개인의 사사로운 사업이 아닌, 선종(宣王: 宣宗)인 ‘국왕, 즉 국가를 대신하여 제종교장을 간행한다.’는 의미로써, 이른바 ‘국가적인 사업으로 제종교장을 간행한다!’는 역사적 史實과 목판의 ‘판각 및 인쇄(彫印)’라는 사업적 事實(fact)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제종교장의 간행(彫印)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³⁷⁾

둘째, 위 인용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제시되는 ‘章疏’ 등의 意義는 특히 주목되는 바,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의천은 “부처가 설한 ‘經’은 ‘論’을 통하여 그 뜻이 드러나며, ‘논’은 다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학문승의 논저인 ‘疏’를 통하여 그 내용상의 심층적인 깊은 뜻을 꿰뚫어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소’는 주해(註解) 등의 여러 ‘義’들을 모아서 학습함으로써 그 疏의 뜻을 헤아려 밝혀지며, 이러한 ‘의’는 수행 및 지혜가 밝은 ‘스승(師)의 강의 및 해설 등의 서술(敍述)’을 통하여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천 자신의 대장경에 관한 교학사상’을 상세하게 피력(披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천은 대장경을 구성하는 각 불경의 이해를 위해서는, ‘經 ← 論 ← 疏 ← 義 ← 師’와 같이 그 역순(逆順)의 차례로 각각 그 하위의 ‘論·疏·義·師’의 해설이나 설명 및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엉클어진 실타래에서 명주실을 풀어내듯(紬繹), 각 경전의 심오한 내용들을 이해·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 바로 이 사항은 이른바 ‘의천의 불교 학습에 관한 순차적(順次的)인 원리’이면서 동시에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은, 대장경의 각 경론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해설 등을 논술한 소초 등으로 개개 경론의 심오한 뜻을 드러내고 해야 할

37)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는 『신편제종교장총록』의 편찬(1090)이 완료된 이후, 『교장총록』에 입각하여 제종교장의 목판 판각이 시행되었을 것이며, 그 제목에서 ‘선종(宣宗)을 대신하여 제종교장을 조인(彫印)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의 작성년대는, 제종교장의 편찬년도인 1090년 무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佛法을 외호(外護)하려는 의천의 신념을 견지(堅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⁸⁾

셋째, 위 인용문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의천은 天台智顗의 天台宗, 慈恩窺基가 개창한 慈恩宗(法相宗), 賢首法藏의 華嚴宗, 南山道宣의 律宗 등 중국에서 개창·선양되는 여러 종파(諸宗)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의천은 바로 이와 같은 중국불교 및 신라와 고려의 제종(諸宗)에 의하여 저술된 모든 장소, 즉 諸宗의 章疏들을 수집하여 敎藏으로 결집·유통시킴으로써, 대장경의 심오한 의미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의천의 신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넷째, 특히 위 인용문의 두 번째 문단은, 의천이 수집한 모든 소초들에 대하여 “諸宗教藏(제종교장)”이라고 특별하게 명명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의천이 수집하여 결집하려는 章疏의 一藏, 즉 ‘정장(正藏)인 대장경을 보속(補續)하는 속장(續藏)’이라는 의미로써 “諸宗教藏”이라고 특별하게 命名한 것은, 수집된 여러 章疏들은 모두 중국과 고려에서 형성된 각 종파불교(宗派佛教)의 소산(所產)으로 보고, 이러한 소초들을 一藏으로 결집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의천이 장소를 수집한

38) 다시 말하여, 대장경에 관한 義天의 敎學思想은, 이른바 ‘대장경의 각 經典을 동전(銅錢)의 앞면(前面)이라고 한다면 제종교장의 각 章疏는 동전의 뒷면(後面)처럼 看做함으로써, 佛經은 論·疏·義·師의 역순으로 각각 그 해설과 도움을 통하여야만 비로소 완전한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 뚫리고 · 밝혀지고 · 서술됨으로써 마침내 각 경전의 대의(大義·大意)가 드러난다’는 논리임을 파악할 수 있다.

39) <선봉사 대각국사비문>에서는, 대각국사가 입송(入宋)하였을 때, 의천에 대한 송나라 정부의 공식 수행원으로 임명한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郎) 양길(楊傑)의 표현을 빌어, <송나라에서 귀국할 즈음에 主客[양길]이 禪宗과 敎宗의 諸公에게 일렀다. “예로부터 바다를 건너 求法한 성현이 많지만, 어찌 승통[의천]이 한 번 중국에 와서 ‘천태(天台: 천태종)·현수(賢首: 화엄종)·남산(南山: 율종)·자은(慈恩: 법상종)·조계(曹溪: 禪宗)·서천법학(西天梵學)’ 등을 한꺼번에 전해 받은 것과 같은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法을 弘布하는 大菩薩의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 그대로 표현한 말일 뿐, 결코 지나치게 칭찬한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林存, “僊鳳寺大覺國師碑文,” 『大覺國師外集』, 제13권, 『대각국사집』, 721.)>라 하였다. 이 비문에서의 ‘諸宗’에 관한 언급은 ‘① 천태종, ② 화엄종, ③ 율종, ④ 법상종, ⑤ 禪宗, ⑥ 西天梵學’ 등을 지칭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차적 목적은 바로 ‘제종교장의 결집’이었음을 파악하게 하여 준다.

다섯째, 위의 인용문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의천의 조부인 현종이 조조한 ‘5천축(千軸)의 비장(秘藏)’은 현종 시대에 조조한 鎭兵大藏經(초조대장경)을 말하는 것이며, ‘10만송(萬頌)의 계경(契經)’은 의천의 부친인 문종 시대에 거란대장경 소수(所收)의 경론 및 송 신역(宋新譯) 경전 등을 편입하여 조조함으로써 진병대장경을 마무리한 史實을 논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려에서 완성된 정장(正藏)인 진병대장경을 외호(外護)하기 위해서는 속장(續藏)인 제종교장의 조인(彫印: 板刻 및 印刷)이 반드시 수반(隨伴)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상소를 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이상과 같이 의천이 수집한 제종교장의 조조에 관한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의천의 章疏 수집에 관한 1차적인 목적은, 의천은 불교 교학에 관한 ‘국제주의 및 보편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산재된 章疏들을 총괄적으로 수집하여 제종교장을 一藏으로 결집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의천이 제종교장을 조인(彫印: 판각·인쇄)한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정장(正藏)인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에 속장(續藏)인 제종교장(諸宗教藏)을 일장(一藏)으로 보속(補續)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에서 ‘고려에서 정장(正藏)과 속장(續藏)을 모두 겸비(兼備)한 가장 완전(完全)한 대장경을 완성하는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제종교장의 간행 영향

제2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특히 ‘대장경에 관한 義天의 敎學思想’은 이른바 ‘대장경의 각 경전을 동전(銅錢)의 앞면(前面)이라고 한다면, 제종교장의 각 소초들은 동전의 뒷면(後面)처럼 간주(看做)함으로써, 佛經은 論·疏·義·師의 역순으로 각각 그 해설과 도움을 통하여야만 비로소 그 온전한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뚫리고·밝혀지고·서술됨으로써 마침내 각 경전의 대의(大義)가 드

러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국시대 신라의 元曉와 義湘 대사의 시대부터 고려 의대각국사 의천의 시대까지는 교학불교(敎學佛敎)가 성행(盛行)하였으나,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특히 몽고의 침략과 무신정권이 등장한 이후 고려의 불교계는 선불교(禪佛敎)가 우세(優勢)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선불교마저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을 보였다. 그러나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하여 결집되고 간행된 제종교장의 영향은 조선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여러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조선시대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에서 주목할 수 있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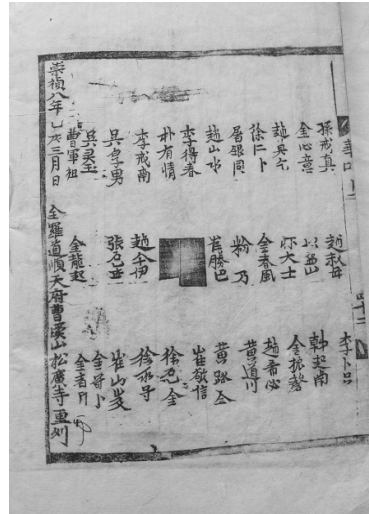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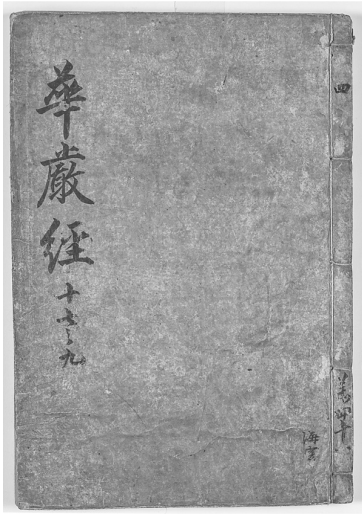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은 ‘의천의 대장경에 관한 교학사상’은 <韓國佛敎 所依經典>을 비롯한 조선시대 불경의 간행방식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끼쳤는가?의 문제, 즉 조선시대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양상에 관하여 형태서지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하여 불교는 그 명맥만 겨우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 초기 世祖 시대에는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불전의 간행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후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조선 말기까지 필요에 따라 불경이 간행되었는데, 그 佛經 간행의 방식이 <그림 1>과 같이 변화되는 경우를 특히 주목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80권 『화엄경』(周本)’의 간행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림 1>에 보이는 『화엄경』은, 그 표지(<그림 1>의 上左 사진)에 ‘華嚴經十七~九’라고 표기하면서 이 경전의 약서명(略書名)을 제시하고 있다.

40) 둘째로 20세기에 들어와서 기획된 『韓國佛敎撰述文獻總目錄』과 『韓國佛敎全書』 및 그 번역본의 기획·간행 등도, 대각국사 의천이 제종교장을 結集한 熱情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 歸眞寺 開板, 松廣寺 重刻의 '80권 「화엄경」 <清凉 疏>, <淨源 注>'⁴¹⁾

- 41) ① 사진 上左: 歸眞寺 開板, 松廣寺 重刻 '80권본 「화엄경」의 表紙. ② 사진 上右: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一의 并序. ③ 사진 下左: 「화엄경」 제6권 卷末 刊記: 「嘉靖35年 … 黃海道 … 歸眞寺 開板」. ④ 사진 下右: 「화엄경」 제12권 卷末 刊記: 「崇禎8年 … 全羅道 …

2) 그런데, <그림 1>의 上右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의 시작’을 알리는 그 속표지의 첫 장(張)의 첫 행에 표시된 서명에는 “大方廣佛華嚴經疏 卷第一”이라 표기되어 있다.

3) 그리하여 그 제2행에서는 “清凉山沙門 澄觀 述, 晉水沙門 淨源錄疏注經”이라 표기(表記)하여, 이 책은 『화엄경』 본문의 각 단락에 唐나라 ‘청량징관의 소(疏)’와 宋나라 ‘진수정원의 주(注)’가 각각 첨가(添加)된 經으로써, 물리적 형태가 아닌, 내용적인 단락들이 불경의 본문 속에 각각 혼입(混入)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장소(章疏)’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단락을 나누어 분석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통하게 한다’⁴²⁾는 의미를 감안하면, 『화엄경』의 본문 각 단락에 ‘징관의 疏’와 ‘정원의 注’에서 해당되는 각 구절들이 흩어져서 혼입되어 있는 현상이야말로 ‘章疏’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주고 있다는 특징을 입증할 수 있다.

4) <그림 1>의 下左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권 『화엄경』’은 “嘉靖三十五年[1556]丙辰六月日 黃海道 瑞興地 嵩德山 歸眞寺 開板” 등이라고 그 간행처(刊行處)와 간행년월을 기입함으로써, 이 책은 임진왜란 이전인 ‘1556년부터 1564년까지’에 걸쳐 황해도 <귀진사(歸眞寺)>에서 목판(木板)으로 개판(開板)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그림 1>의 下右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80권 『화엄경』’은 “崇禎八年[1635]乙亥三月日 全羅道 順天府 曹溪山 松廣寺 重刻”이라는 간기에서 보는 바, 1556- 1564년의 귀진사본 ‘80권 『화엄경』’을 1635년에 전라도 순천 조계산 <송광사>에서, 귀진사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다시 목판으로 거듭 새겼음(重刻)을 확인하게 하여 준다. 즉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귀진사 開板 『화엄경』은 전란으로 인하여 그 목판이 사찰과 함께 소실(燒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후 전란의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시점이라 볼 수 있는

松廣寺 重刻’

42) 오윤희, 『일꾼 의천』 (서울: 불광출판사, 2012), 274.

1635년에, 귀진사본 80권 『화엄경』의 인쇄본을 저본으로 하여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목판으로 거듭 새겼음(重刻)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엄경』은 조선시대의 사찰 강원(講院)에서 대교과(大敎科)의 교재(敎材)로 사용되었던 ‘한국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던 불경이다.

6) 위와 같이 조선시대 불교의 소의경전으로 중요시되었던 『화엄경』을 비롯한 개개 불경(佛經)의 학습을 위한 간행에서는, 각 불경의 대의(大意: 大旨)를 가장 잘 해설하고 설명하는 특정한 장소(章疏: 疏)를 이른바 ‘중요 참고서(參考書)’를 채택하였고, 이 중요 참고서에 대한 특정 법사의 주(註: 註疏)를 ‘제2의 참고서’로서 다시 채택하여, 해당 경전의 각 구절에 각각 첨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첨언(添言)한다면, 이 책은 ‘화엄경’ 제1권에 ‘청량징관의 ‘소(疏) 1권’과 ‘진수정원의 주(注) 1권’을 물리적(物理的)으로 합책(合冊) 또는 합권(合卷)한 방식이 아니고, 『화엄경』의 본문 각 단락(句節)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징관의 疏와 정원의 注의 각 구절들을 각각 혼입(混入)시킨, 이른바 내용상의 혼합(混合)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³⁾

7) <그림 1>의 『화엄경』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注目)하여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귀진사 開刊, 송광사 重刻本 80권 『화엄경』’은, 의천이 ‘고려 화엄종의 9(아홉) 조사(祖師)⁴⁴⁾’ 확정된 祖師 가운데 한 사람(1人)인 청량

43) 예컨대, 『화엄경』 본문의 각 단락(句節)마다 ‘唐 청량징관의 소(疏)’에서 해당하는 구절(句節)을 안배(按配)하고, 여기에 다시 ‘宋 진수정원의 註’를 그 주석(註釋)으로 첨부(添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경전의 각 단락에 대하여 이중(二重)으로 그 해설과 주석(註釋)을 각각 첨가함으로써, 해당 경전의 학습에 만전(萬全)을 기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불서간행의 방식은, 예컨대 교과서의 각 본문 각 구절(句節) 구절에 ‘제1의 참고서의 해당 내용’이 혼입(混入)되고, 연이어 ‘제2의 참고서의 해당 내용’ 다시 혼입(混入)되어 들어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44) <영통사 대각국사비문>에서는 “신사년(辛巳: 1101, 肅宗 5) 2월에 洪圓寺 ‘九祖堂’이 이루어지자, 上(임금: 肅宗)이 국사(의천)를 청하여 훈수(勳修: 淨心齊戒)하고 落成하게 하였다. 그 이전에는 祖譜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馬鳴·龍樹·天親·佛陀·光統·帝心[杜順]·雲華[智儼]·賢首[法藏]·清涼[澄觀]’의 9祖師로 확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 화엄종의 ‘華嚴 9祖師’는 의천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다. 중국의 화엄종에서는 ‘初祖 杜順, 2祖 智儼, 3祖 賢首法藏, 4祖 清涼澄觀, 5祖 圭峰宗密’로 정하고 있는

정관(淸涼澄觀)⁴⁵⁾의 소(疏)가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⁴⁶⁾ 의천은 중국 여러 종파(諸宗)의 교학(敎學)에 정통(精通)하였던 청량정관을 지극히 존경해 마지않았기 때문에,⁴⁷⁾ 고려 화엄의 9祖 중의 1인으로 추앙하였음을 특별하게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위 <그림 1>의 『화엄경』에는, ‘의천을 직접 중국으로 초청하였고’⁴⁸⁾ 또한 ‘의천이 도송(渡宋)하였을 때 가장 긴 시일에 걸쳐 함께 華嚴을 論講하고, 서로 존숭(尊崇)하면서 사제관계를 맺었던 정원(晉水淨源)⁴⁹⁾법사의

경향인데, 의천은 ‘고려 화엄종의 9祖師’를 확정하면서 중국 화엄종에서의 규봉종밀 보다 청량정관을 더욱 존숭하였음을 은연(隱然)중에 인식할 수 있다.

45) 淸涼澄觀: 738-839. 중국 唐 시대, 화엄종의 제4祖. 그는 ‘화엄보살’ 또는 ‘華嚴疏主’라고 불릴 정도로 『화엄경』의 해설에 정통하였던 인물이다. 게다가 정관은 華嚴經의 敎學에 精通하였을 뿐만 아니라, 南宗禪과 北宗禪의 융합을 꾀함과 동시에 天台・華嚴敎學과 禪의 융합을 주장하여 ‘禪敎一致’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 8세기말・9세기 초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學僧이자 禪僧이라 할 수 있다.

46) 청량정관은 曇一로부터 戒律宗을, 玄壁에게서 三論宗을, 法藏과 法詵으로부터 起信論과 華嚴宗을, 湛然에게서 天台宗을, 惟忠과 道欽으로부터 南宗禪을, 慧雲에게서 北宗禪을 각각 배움으로써, 정관이야말로 역대 중국불교에서 여러 諸宗의 敎學에 가장 精通하였던 인물임을 주목할 수 있다.

47) <영통사 대각국사비문>에, “乙巳年(1065, 문종 19) 5월 14일에 … (義天 出家 상황) … 이때 [의천은] 春秋 11세였으나, 학문을 멈추지 않아 이미 成人의 경지에 이르렀다. 언젠가 꿈에 어떤 사람이 정관법사의 글을 전해 주었는데, 이로부터 慧解가 날로 발전하였다(金富軾, [“靈通寺大覺國師碑文,”] 『大覺國師外集』 제12권, 『대각국사집』, 689.)”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의천은 출가하는 년도 당시에 이미 정관의 『華嚴經疏』를 읽으면서 『화엄경』을 공부하였으리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48) <영통사 대각국사비문>에 “국사(의천)는 일찍부터 송나라에 가서 求道할 뜻을 지니고 있었다. 진수정원 법사가 慧行으로 학자들의 스승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商人의 선박 편에 글을 부쳐 禮를 닦았는데, 源公(정원)도 국사가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는 곧바로 회답을 하며 초청을 하니, 이로부터 송나라로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절실하였다”(金富軾, [“靈通寺大覺國師碑文,”] 『대각국사외집』 제12권, 『대각국사집』, 690.)라고 銘記하고 있다.

49) 晉水淨源: 1011-1088. 중국 宋 華嚴宗에서 11세기의 대표적 學僧. 항주 남산 慧印寺의 法師. 정원법사는 오대산 承遷에게 『화엄경』을, 黃梅 明澤에게 舍論을, 『기신론』・능엄경・원각경』을 長水법사 자선(子璿)에게 배웠다. 특히 자선은 張水寺에 기거하면서 『화엄』과 『능엄』의 강론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宋 眞宗은 1013년에 자선에게 紫衣와 “長水疏主 楞嚴大師”라는 號를 하사하였다.

『대각국사문집』에는 의천이 정원에게 보낸 편지 등이 7건 이상 보이며, 『대각국사외집』에는 정원이 의천에게 보낸 글 5首 이상 수록되어 있다. <영통사 대각국사 비문>에는 ‘의천이

소주(疏注)가 청량징관의 疏에 덧붙여서(添加) 수록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하여 위 <그림 1>의 '80권(周本) 『화엄경』'은 경전 본문의 각 단락(句節)에, 화엄종에서 의천이 重視한 청량징관의 疏와 진수정원의 註가 이중으로 첨가됨으로써, 이른바 '경전의 본문 각 단락 사이에 疏와 註가 연속적으로 附加된 『화엄경』'이라는 특별한 교재가 간행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이 사항은 '의천의 대장경(각 경론: 『화엄경』)에 관한 교학사상'이 조선시대에도 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간주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특정 경전 본문의 각 단락(句節)에, 이와 관련된 疏와 註의 해당 부분이 첨가되는 형식의 佛經이 간행된 배경은 바로 '의천의 대장경에 관한 敎學思想'에서 비롯되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2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의천은 예컨대 대장경의 각 경전을 동전의 앞면이라고 假定하면, 각 경전에 관한 章疏가 흡사 동전의 뒷면처럼 첨부됨으로써 비로소 해당 경전의 심오한 뜻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논리를 『대각국사문집』의 여러 글에서 피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화엄경』의 변화된 간행 방식은, 관련 서적 3책(冊)의 물리적인 합본(合本)이 아니고, 2책의 소(疏)·주(註)의 내용이 흩어져서 불경 본문의 각 간락(구절) 속에 각각 녹아 들어감으로써, 불경의 본문 각 단락에 해당 부분의 소(疏)·주(註)가 융합된 방식으로 간행되었

중국에 갔을 때 정원을 만나기 위하여 수도 변경에서 항주까지 내려가자, 정원은 宿緣적인 만남을 기념하여 華嚴을 講함으로써 상호간 진지·성실한 논쟁이 오래 지속되었다. 또한 정원이 慧因院에서 '周本 『화엄경』(80권본)'을 개강할 때 의천은 금전을 회사하여 학도들을 많이 모이게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송나라 조정에서는 의천의 해인원의 방문과 회사를 배려하여 원래 禪院이었던 해인원을 [화엄]講院으로 바꾸고 조세를 면제하여 주었다. 게다가 의천은 秀州 眞如寺에 있는 楞嚴疏主(자선: 정원법사의 스승)의 퇴락한 塔亭을 수선하도록 회사하는 등 정원법사에 대한 예를 다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이 비문에서는 "4월에 다시 [승통이] 해인원에 들어가니, 정원법사는 국사에게 道를 전하고는 正坐하여 焚香하며 일렀다. '바라건대 승통은 고려로 돌아가서 佛事를 널리 짓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하나의 法燈을 전함으로써 百千의 법등이 서로 이어져서 무궁하게 전하도록 하시오!'라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원법사는 승통에게 香爐와 佛子를 주어 信標를 삼게 하였으니, 승통이 源公을 資賴하여 道가 발전되었을 뿐 아니라, 원공의 명성이 더욱 높아진 것 역시 승통이 드날려 주었기 때문이다(金富軾, [“靈通寺大覺國師碑文,”] 『대각국사외집』 제12권, 『대각국사집』, 693.)."라고 기록하고 있다.

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경의 간행에 있어서 그 서지구조(書誌構造)의 방식마저 변화된 『화엄경』이 간행된 것은 불경 학습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은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법화경』의 간행 사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법화경」 <戒環 解, 一如 集註>’는 <백련사 보현도량>에서 채택되었다.⁵⁰⁾ 바로 이러한 「법화경 계환해」는 1240년에 최이의 발원에 의하여 白蓮社와 무선정권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간행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 책은 ‘白蓮結社’⁵¹⁾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²⁾ 그리하여 「법화경 계환해」는 ‘고려 후기 천태종의 사상 경향을 대변하는 章疏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⁵³⁾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법화경」의 간행에 있어서, 「법화경」에 관한 계환의 章疏가 불경 본문의 각 단락에 삽입된 형식으로 간행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의천의 교학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간행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⁵⁴⁾

한편,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기 중엽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되고, 17세기 초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법화경」에서는 <계환 해(解: 章疏)>만 불경의 본문 각 단락에 추가된 형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세기 중기의 간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19세기 후기에 목활자(木活字)로 간행된 「법화경」에서도 계환의 章疏(解)만 불경의 본문 각 구절에 추가된 형식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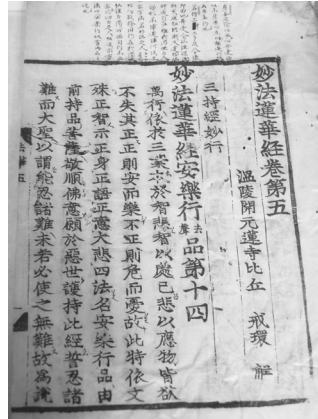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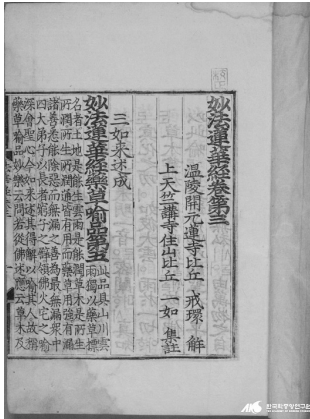
50) 고익진, “법화경 계환해의 성행내력과,” 『불교학보』 12(1975), 171-198.

51) 고려 天台宗의 요세(圓妙了世)가 1216년 탐진 만덕산에서 조직한 수행결사. 1236년에 眞靜天頤이 白蓮結社文을 지어 공표. 제2세 靜明天因 등 8國師를 배출. 禪宗 계통의 修禪社와 쌍벽을 이룸.

52) 김성수,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151-186.

53) 박광연, “고려후기 ‘法華經 戒環解’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 고려후기 天台宗의 사상 경향에 대한 일고찰,” 『불교연구』(한국불교연구원) 제38호(2013년 2월), 261-299. 참고.

54) 게다가, 위 <그림 2>의 「법화경」 <戒環 解>에는 ‘明나라 一如의 集註’가 첨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림 1>의 ‘80권 『화엄경』 <清涼 疏>, <淨源 注>’의 간행방식과 일치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법화경’ <戒環 解> 一如 集註>⁵⁵⁾ <그림 3> ‘법화경’ <戒環 解> - 1’⁵⁶⁾

셋째, 위와 같은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원각경’ 언해의 간행 사항에서도 다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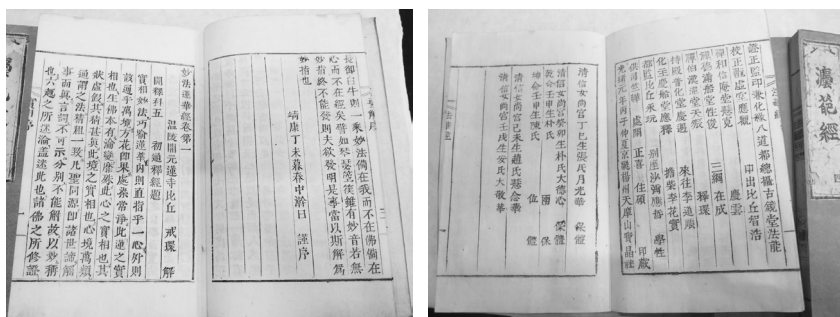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는 ‘원각경’은, ‘원각경’⁵⁷⁾의 본문 각 단락(句節)에 唐나라 규봉종밀(圭峰宗密)의 소초(疏鈔)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간행된 책에 대하여, 조선시대 세조(世祖)가 토를 달고 信眉・孝寧大君・韓繼禧 등이 번역한 것으

55) 출처: “『묘법연화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시대 1463년(세조 9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 ‘보물 제1010호’. 1989년에 ‘권1, 3, 4’가 보물로 지정되었고, 1995년에 ‘권5, 6’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56) 북한산 <대성암>이 소장하고 있는 ‘법화경’ 권5’ 목판본: 1455년(世祖 元年)에 鑄造한 乙亥字로 간행한 판본을 底本으로 한 목판본. 이 책의 판각 시기는, [1626年 以前에] 간행된 을해자 번각본 계열의 자료와 동일한 “一訓, 彦奇, 玄敏, 法雲” 등의 刻手名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7) ‘大方廣圓覺偈多羅了義經: 圓覺經’: 韓國佛教 所依經典의 하나.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四教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었다. 이 판본은 1465년(世祖11)에 간행된 <간경도감본>과 같은 체제이나, 본문에서 언해 부분은 생략하고 구결부분만 乙酉字(1465)로 인쇄하여 간행된 것이다. 보물 제1219호(개인 소장). / ‘원각경’ 간행의 현존본 중 유명한 판으로는 ①1380년(우왕 6) 李穡의 跋文이 있는 판본을 비롯하여, ②世祖 年間에 乙亥字로 간행한 活字本, ③1464년(세조 10)의 刊經都監版, ④1465년에 을유자(乙酉字)로 찍어 낸 활자본 등이 있다.

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책을 1465년에 을유자(乙酉字)로 다시 간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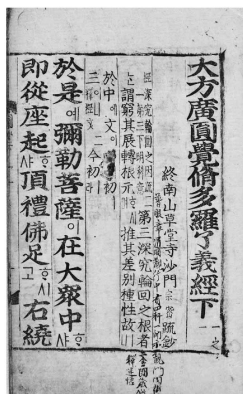


<그림 4> 「법화경」 <戒環 解> -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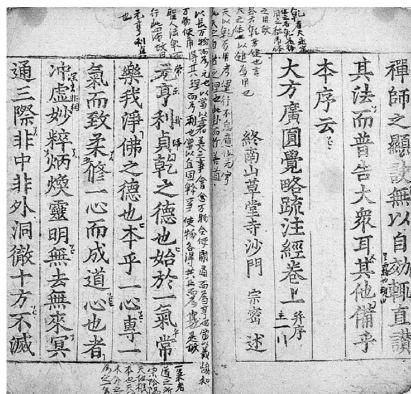
위와 같이 조선 초기의 세조(世祖) 시기에 <간경도감>에서 「원각경」 언해⁵⁹⁾를 간행할 때에는, 애초부터 「宗密의 疏鈔」가 「원각경」의 본문 단락 사이사이에 수록되어 「원각경」을 선택함으로써 그 언해본을 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언해본의 書名, 즉 이 책의 제목은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下)”라고 명명함으로써 「佛經의 正式 간행」을 표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는 <간경도감>에서 「원각경」의 언해본'을 간행할 당시에 그 본문 각 단락 사이에 특정인의 疏鈔, 즉 그 해제가 포함되어 있는 불경으로 해당 경전을 이해하고자 하는 조선 당시 사람들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파악할 수 있다.

58) 1547년(靖康 丁未)의 刊本을 底本으로 하여, 1876년(光緒 元年 丙子)에 경기도 양주 寶晶社에서 木活字로 '7卷 7冊' 50部를 간행한 책 중의 한 帙. 조선시대에 간행된 「법화경」 중 유일(唯一)한 목활자본(木活字本)임.

59) 「圓覺經」 諺解'는 조선 世祖 때 신미·한계희 등이 한글로 번역한 불경 번역서. 1464년(세조 10)에 <刊經都監>에서 간행되었고, 1575년(선조 8)에 중간되었다. 10책. 上1이 1·2, 上2가 1·2·3, 下1·2·3이 각각 1·2로 分卷되어 있다. 唐나라 宗密的 「圓覺經大疏鈔」에 世祖가 토를 달고, 信眉·孝寧大君·韓繼禧 등이 번역한 것이다.



<그림 5> 「원각경」 <宗密 疏鈔> 언해¹⁾



<그림 6> 「大方廣圓覺略疏注經」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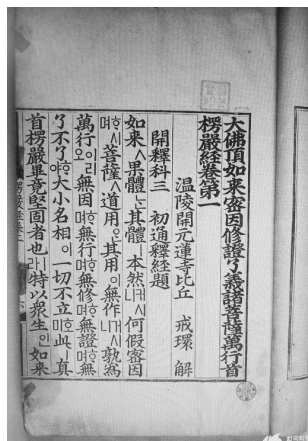
위와 같은 「원각경」에 관한 간행방식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 「원각경」<종밀 소초>, 즉 「大方廣圓覺略疏注經」의 간행 사례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은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은,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 ① 「대방광원각락소주경 권상(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 ‘보물 제893호’. 「원각경」에 唐 宗密이 간략하게 注를 달아 해설한 것으로, 목판에 새겨 닥종이(楮紙)에 인쇄. 크기: 세로 29cm, 가로 17cm이다. 원래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1판에 20행씩 새긴 것을 10행씩 찍어내어 책으로 만들었다. ‘권 하’가 떨어져 나가서 책 끝에 있는 간행기록을 잃어 버렸으므로, 정확한 간행시기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宋나라에서 보낸 목판으로 찍어낸 「대방광불화엄경소」와 판의 형식·글자체·판각 기법 등이 비슷하여, 송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고려시대에 새긴 판본으로 보임. ‘卷下’가 떨어져 나갔으나 송나라 판본을 보고 새긴 고려시대의 목판본이란 점에서 가치가 있다.

② 「대방광원각락소주경 권하(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下)」: ‘보물 제963호’ 목판본, 1권1책. <관문사 성보박물관> 소장본. 「원각경」이라 약칭. 「원각경」은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깊이 신봉하여 ‘義經’이라고 한 뒤 크게 유행하였다. 위의 책은 「원각경」의 본문 각 구절들에 대하여 唐나라 宗密이 經의 내용을 풀이하여 註釋한 책 중 ‘卷下 1책’으로, 닥종이(楮紙)에 찍은 목판본이다. 포배장(包背裝: 책장을 겹겹이 포개 몸통을 꿰맨 후, 다른 종이로 겹을 감싸 표지로 삼음), 책의 크기는 세로 34.2cm, 가로 19cm이다. 기록이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판의 새김이 「대방광원각락소주경」 권상(보물 제893호), 「대방광원각락소주경」 권상(보물 제938호)과 같아서, 송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고려시대에 다시 새겨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능엄경」 이해의 간행 사항에서도 또 다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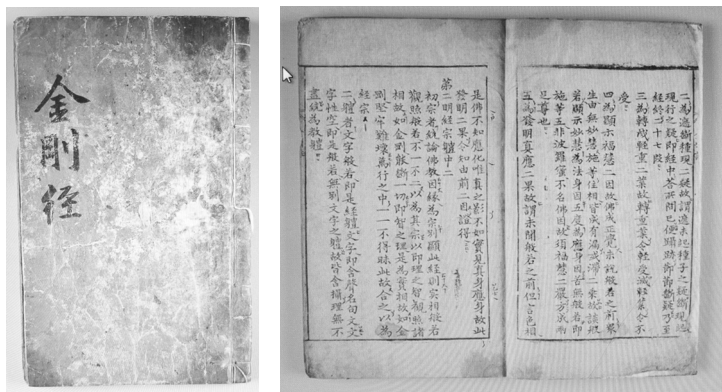


<그림 7> 「능엄경」 <戒環 解> 諺解⁶¹⁾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첫머리(卷首)에는 먼저 그 첫 행에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라는 「능엄경」의 완전서명을 제시하고, 서명 사항의 다음 행(行)에는 「능엄경」의 註解書로 定評이 난 <戒環 解>의 해당 구절들을 경전 본문의 각 단락(句節) 뒤에 배치한다.’는 개념으로 章疏의 저자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조선의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은, <그림 8>에서도 볼 수 있다.

61) ① 「능엄경」의 완전서명(完全書名):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보통 「능엄경」 또는 「대불정수능엄경」이라고 약칭함. ② 「능엄경」 이해: 「능엄경」의 이해서. 宋나라 계환이 了解한 책에, 조선 초기 世祖가 한글로 구절을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10권 10책.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위 책은 목판본으로 보인다. 이 책은 활자본과 목판본의 2종(種)이 있다. 활자본(乙亥字)은 1461년(세조 7)에, 목판본은 1462년에 간행되었다. 목판본은 같은 판목으로 1472년(성종 3)과 1495년(연산군 1)에 다시 간행되었다.



<그림 8> 「금강경 오가해」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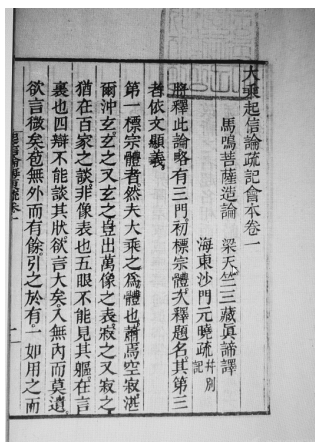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금강경 오가해(金剛經五家解)」의 간행 사항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경』에 대한 註釋書로서, ① 唐 圭峰宗密的 「金剛般若經疏論纂要」, ② 唐 六祖慧能的 「金剛般若波羅蜜多經解義」, ③ 梁 傅大士의 「金剛經頌」, ④ 宋 야보도천(冶父道川)의 「金剛經註」, ⑤ 宋 宗鏡의 「金剛經提綱」을 <그림 1> 「화엄경」의 사례처럼 하나로 묶은 책이다. 또한 <그림 8>의 표지 서명은 ‘金剛經’이라 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금강경』 본문의 각 단락(句節)마다 위 5大家 각각의 견해를 차례로 나열하여 혼입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여섯째, 위와 같은 佛經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은, <그림 9>와 같이, 論藏의 대표적인 저술인 「大乘起信論」 본문의 각 단락 사이에 ‘元曉 疏’의 해당 부분이 첨가·융합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의 저자사항에서는 인도 馬鳴의 저술을 중국의 眞諦가 번역하고, 여기에 신라 ‘元曉의 疏 및 別記’를 혼입(混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⁶³⁾

62) 「금강경 오가해」: 보물 제1082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415년(태종 15)에 성거(省厓)가 글씨를 쓰고, 해혜(海惠)와 조구(祖駒)가 시주하여 간행하였다.

63) 즉, 2권으로 구성된 「대승기신론소」는 「기신론」의 본문 각 구절에 따라 일일이 원효의 소(疏: 註解 및 論述)를 붙인 책이다.



<그림 9>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소』의 구성은 크게 ① 종체(宗體)를 밝힌 부분,⁶⁴⁾ ② 제목에 대한 해설,⁶⁵⁾ ③ 본문에 대한 해석⁶⁶⁾으로 구분된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중국의 현학적인 주석에서 탈피하여, 원문의 글 뜻에 매달리지 않고, 원저자 馬鳴의 정신

- 64) ‘宗體를 밝힌 부분’에서는 『기신론』의 문장 하나하나가 어느 경전의 말씀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과, 『기신론』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주장을 밝히고, 그 논이 불교 교리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드러내는 글을 싣고 있다.
- 65) ‘제목에 대한 해설’에서는 ‘대승기신론’이라는 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대승의 ‘大’는 널리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뜻으로 진리를 두고 한 말이며, ‘乘’은 싣고 나르는 것을 그 기능으로 삼기 때문에 비유로 수레라 한 것이라 하였다. ‘起信’은 이 눈에 의하여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며, 믿음이란 결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 66) 본문에 대한 해석은, 크게 ‘衆生心の 유전(流轉)과 환멸(還滅)하는 갖가지 사함’을 다룬 부분과, ‘혁명적인 실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풀이하였다. ‘유전과 환멸’에서는 전체 내용을 구분하여, ‘一心二門, 離言眞如, 依言眞如, 아알라야識, 覺, 不覺, 生滅의 인연과 心, 意, 意識, 물론 생각, 생명의 양상, 薰習, 진여의 體相用, 그릇된 집착, 세 가지 發心’ 등 1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원효의 독창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 ‘혁명적 실천’에서는 먼저 신심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完德을 위한 실천법으로서 ‘배풀어 줄 것(施), 윤리를 지킬 것(戒), 참고 용서할 것(忍), 부지런히 노력할 것(進),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그 깊이를 볼 것(止觀)’ 등을 제시하였다.

을 드러내는데 주력한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기신론』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賢首法藏(643-712)도 원효의 주석과 해석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중국불교계에서는 특히 원효의 이 저술을 ‘海東疏’라는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면서까지 重要視하였다.⁶⁷⁾ 그리하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는 현대 全世界의 ‘기신론’ 연구가들에게 지금도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대각국사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을 주목하고, 조선시대부터의 <한국불교 소의경전>에서 ‘대교과(大教科)의 『화엄경』, 수의과(隨意科)의 『법화경』, 사교과(四教科)의 『능엄경』·『대승기신론』·『원각경』·『금강경』’인 6種의 經論에 관한 간행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한국불교 소의경전> 중 대표적인 불경과 논서인 위 6종의 경전들은 모두, 경전의 본문의 각 단락(句節)에 특정 章疏의 해당 부분이 각각 혼입(混入)되어 전개되는 간행 양식으로 변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불경의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은, 결국 의천이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서 주장한 ‘의천의 불교 학습에 관한 순차적(順次的)인 원리’ 즉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敎學思想’이 조선시대 한국불교의 교육과 학습을 위한 소의경전의 간행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임을 파악하였다.

4.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의천이 결집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각국사문집』을 비롯한 의천 관련 1차문헌(자료)들을 섭렵하고, 특히 의천의

67) 이 책의 古刊本은 일본 大正大學에 ‘元祿9年 간본’이 소장되어 있고, 『大正新脩大藏經』 및 『원효전집』 등에 수록되어 있다(이기영, 『원효사상』 I - 세계관 - (서울: 흥법원, 1967.).

“代世子集教藏發願疏”(1073)와 “『新編諸宗教藏總錄』序”(1090) 및 “代宣王[宣宗]諸宗教藏彫印疏”(1090년 무렵) 등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1) 의천의 “代世子集教藏發願疏”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천은 고려에서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이 완성되어 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장소(章疏)들을 수집하여 속장(續藏)인 제종교장(諸宗教藏)을 일장(一藏)으로 갖추어 정장(正藏)인 대장경에 보속(補續)시키고자 국가적인 차원의 서원(誓願)을 세웠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序”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의천은 제종교장의 각 소초(疏鈔)들은 해당 경론(經論)과 함께 병존(並存)할 때, 즉 각 소초들의 설명과 해설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개개 경론(經論)에서 전개되는 내용과 의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천은 ‘해당 경론과 해당 장소(章疏)들이 함께 유통되어야만 그 章疏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의천이 수집·간행한 제종교장(諸宗教藏)은, 대장경을 제외한 장소(章疏)와 기타문헌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부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의천의 최종 목표는 정장(正藏)인 진병대장경에 속장(續藏)인 제종교장을 보속(補續)시킴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고려대장경을 완성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3) 의천의 “代宣王[宣宗]諸宗教藏彫印疏” 등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① 의천의 장소(章疏) 수집에 관한 1차적인 목적은, 의천은 불교 교학에 관한 ‘국제주의(國際主義) 내지는 보편주의(普遍主義)적 사상’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산재된 장소(章疏)들을 총괄적으로 수집하여 제종교장(諸宗教藏)의 일장(一藏)으로 결집(結集)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그리하여 의천이 제종교장을 조인(彫印: 판각 및 인쇄)한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정장(正藏)인 진병대장경(鎭兵大藏經)에 속장(續藏)인 “제종교장(諸宗教藏)”을 일장(一藏)으로 보속(補續)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 중에서 ‘고려에서 正藏과 續藏을 모두 겸비한 가장 완전한 대장경을 완성하는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제3장 ‘제종교장의 간행 영향’에서는, 제2장에서 논술한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을 주목하고, 이러한 의천의 대장경에 관한 교학사상이 조선시대 불경의 간행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형태서지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부터의 <한국불교 소의경전>에서 '대교과(大敎科)의 「화엄경」, 수의과(隨意科)의 「법화경」, 사교과(四敎科)의 「능엄경」·「대승기신론」·「원각경」·「금강경」'인 6종(種)의 경론(經論)에 관한 간행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하여 <한국불교 소의경전> 중 대표적인 불경(佛經)과 논서(論書)인 위 6종의 경전들은 모두, 해당 경전의 본문 각 단락(句節)마다 특정 章疏의 해당 부분이 각각 혼입(混入)되어 전개됨으로써, 불경의 내용과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간행 형식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불경 간행방식의 변화 양상은, 결국 '대장경에 관한 의천의 교학사상'이 조선시대 불교의 교육과 학습을 위한 소의경전의 간행에 사상적인 영향을 지대(至大)하게 끼친 결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을 파악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권제10, 世家 권제10. / 권제129. 列傳 제42, 최충헌條.

『金剛經 五家解』: 보물 제1082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下』: 보물 제963호. 목판본, 1권1책. <관문사 정보박물관> 소장.

'80권본 『華嚴經』: 歸眞寺 開板, 松廣寺 重刻. 하동 <청계사> 소장.

金富軾. ["靈通寺大覺國師碑文."] 『대각국사외집』 제12권,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義天. "庚辰六月四日 國淸寺講徹天台妙玄之後 言志示徒." 『大覺國師文集』 권제20.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460.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권제15.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300-301.

- 義天. “代世子集教藏發願疏.” 『大覺國師文集』.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285-286.
-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大覺國師文集』 권제1.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62-63.
- 義天. “與內侍文冠書.” 『大覺國師文集』 권제13.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267.
- 林存. “南崇山僊鳳寺海東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序.” 『大覺國師外集』.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2. 717.
- 고익진. “법화경 계한해의 성행내력고.” 『불교학보』 12(1975). 171-198.
- 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 김성수.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151-186.
-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보 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8-80.
- 大屋徳城. 『高麗續藏彫造考』. 京都: 便利堂, 昭和12[1937].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박광연. “고려후기 ‘法華經 戒環解’의 유통과 사상사적 의미: 고려후기 天台宗의 사상 경향에 대한 일고찰.” 『불교연구』(한국불교연구원) 제38호(2013. 2). 261-299.
- 박용진. 『義天,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2011.
- 서진수, 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 그 천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 오윤희.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서울 불광출판사, 2011.
- 오윤희. 『일꾼 의천』. 서울: 불광출판사, 2012.
- 의천 저,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이기영. 『원효사상』. 서울: 홍법원, 1967.

이지관.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경서원, 1983.

池内宏. “高麗朝の大藏經.” 『東洋學報』 第13卷 第3號(大正12[1923]). 307-362.

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7.

